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엉 살아보게 마썸 (13)



홍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코로나 시국 민·관 소통기구 어디에

문화행사·축제 멈추면서 문화·관련업계 호소에도 도지사 직속 문화예술위원회

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와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된 위원회에도 문화예산이 잘릴 위기에 처하고 축제 고사로 관련 종사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별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말뿐이었다. ▶비대면 사회 대비한 논의 더욱 절실=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꾸려졌다는 축제육성위원회는 어떻게,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는 지정축제의 선정, 대표축제의 개발, 축제의 통·폐합, 축제 발전전략, 축제 평가, 예산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도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지역 축제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곳이지만 올해 들어 개최된 사례가 없다. 지난해엔 소위원회 포함 8차례 회의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난 6월 11일 제주 문화예술계에서 긴급 성명이 잇따라 발표됐다. 제주민예총 등 12개 단체는 제주도정을 향해 “문화예술 예산 전면 삭감과 취소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팬데믹 이후 문화예술과 문화정책에 대해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진정한 협치와 소통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제주행시대행업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행사와 축제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게 아니라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구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됐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추진,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맡는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된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회의 개최 요구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미뤄졌다”며 “지난달 회의에서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는 9월에도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예측이 어렵고 장기화된다면 축제 사후 평가를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활성화 취지 분과위 가동 말뿐=제주 문화동네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즈음에 일각에서는 제주도

에 설치된 두 개의 위원회를 거론하

그 생명들 숲에 오래도록 깃들기를

허문희의 '숲의 시간'전 초록 장막 안 품은 생명

갖 동물들이 그 숲에 살고 있음을 일깨우며 지금, 여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허문희의 '섬의 숲-드림(Dream)'. 에 베이버리는 오늘날 그가 불러낸 숲은 역설적으로 위태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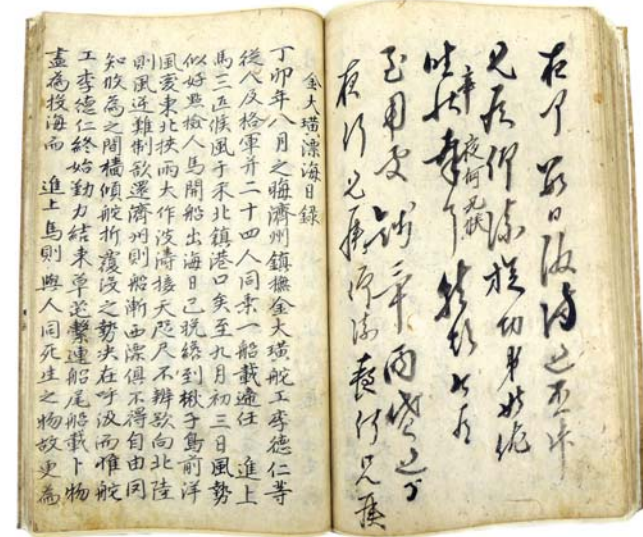
그는 진초록 기운이 퍼져있는 그림을 내걸면서 리처드 파워스의 장편소설 '오버스토리'의 한 대목을 끌어왔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견과를 보고 목재를 보고 그림자를 본다. 장식품이나 예쁜 가을의 나뭇잎을 본다. 길을 가로막거나 스키장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본다. 깨끗이 밀어야 할 어둡고 위험한 장소를 본다. 우리 지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지들을 본다. 환금성 작물을 본다. 하지만 나무는,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캔버스에 아크릴로 담아낸 그의 신작들은 이 인용문이 전하는 울림과 달아있다. 나무와 식물, 새와 곤

제주도미술대전 대상(판화), 제주 우수청년작가상,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상, 조계청년미술상 수상 경력의 제주 허문희 작가가 펼치고 있는 '오버스토리-숲의 시간'전이다. 열다섯 번째 개인전에서 작가는 숲의 시간 속에 숨겨진 생명력을 시각 언어로 빚었다.

지난 1일 델문도갤러리(제주시 연삼로316)에서 시작된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55-0006. 전신히기자

제주 역사문화에 입문하려는 이들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인 홍기표 박사의 2020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둘레 새긴 기록, 길에 새긴 역사' 중 제주 역사문화 관련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이 강의는 7월 22일 시작돼 매주 수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 관련 고문헌 중 하나로 2018년 보물로 지정된 이덕태 제주목사의 지명록.

(1)제주의 고문헌

역사지식지에 주제별 해설 장계·서계첩엔 제주 현안 방목류는 과거급제 명단 시대 달리한 개인문집도 제주 변화상 읽을 수 있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 사회경제상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근래 역사 작업이 활발하다.

최근 들어 제주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고문헌과 고문서가 자주 발굴, 소개되고 있다. 역사서 또한 해가 다르게 출간된다. 어떤 책부터 먼저 읽어야 하는가?

군사전적류로는 '제주속오군군적부',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 등이 있다. 제주는 섬이어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의 동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일찍부터 봉수와 연대 등 군사통신 시설, 9진성 등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제주의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문헌은 다양한 종류의 방대 한 저술이 있다. 조선시대 여러 관료 학자들이 펴낸 개인문집, 탐라의 건치연혁과 풍속도산 등이 상세히 기술된 역사지리지, 제주목사와 어사가 제주의 실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장계·서계첩, 군사제도와 방어시설을 살필 수 있는 군사전적류, 제주인의 과거급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목류 등이 그것이다.

방목류는 '급제선생안', '옹방록', '연방록'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수백 명의 조선시대 제주 인재들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의 충효열과 관련된 이들의 행적을 모은 '효열록'도 제주 인물사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분류된다.

개인문집은 시대를 달리하는 저술이어서 제주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는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변방이며 '원야도'로 여겼지만 신선이 산다는 영주산(한라산)이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었다. 제주목사는 물론 안무이사, 유배인들이 여러 시문이나 기행문을 남긴 이유다.

가장 이른 15세기의 문집은 1470년(성종 1) 10월부터 1473년 8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익 등의 '노촌선생실기', 현재 알려진 표해록 중 가장 오래된 최부부의 '(금남)표해록'이 있다. 16세기의 문집은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서 보냈던 편지들을 모은 것으로

개인이 펴낸 제주 최초의 풍토지인 김경의 '제주풍토록'('충암선생문집' 권4), 제주목사 조사수와 영월군수 박충원이 주고받은 한시를 수록한 '영해창수록',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했던 임제의 제주도 기행문인 '남명소승'('백호선생문집' 부록) 세 권이 확인된다.

17세기의 문집은 네 권에 이른다. 김상헌의 일기체 기행문으로 17세기 이전까지 제주 실정이 종합적으로 기술된 '남사록'('청음선생유집' 권2), 약 8년간 제주 유배 생활을 하며 지은 이건의 '제주풍토기'('규장집' 권5), 안해경순 무어사로 파견된 이증의 일기체 기록인 '남사일록', 1694년(숙종 20) 7월부터 1696년 9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익태의 '지명록'이 그에 해당한다. 18세기 문집은 시대순으로 이형상의 '병와집', 송정규의 '해외문견록', 남구명의 '우암선생문집', 정은경의 '탐라문견록', 김경의 '노봉선생문집', 김준택의 '북헌집', 신광수의 '탐라록'('석북선생문집' 권7), 장한철의 '표해록'(제주도유형문화재 제27호)이 있다. 19세기 문집은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 이원조의 '탐라록', 이강희의 '탐라적방설' 세 권이 전해온다.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제주 최초 LG Z:In 창호천시장 오라점 오픈

최고의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저희 한진시스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창호 전문 상담

1F: 전시장
2F: 카페 내부

JB 나노방진시스템

JB 프리미엄 나노방진방

자연풍 및 환기가 가능한 PRE-FILTER의 장점과 미세먼지 / 꽃가루 / 냄새 / 빗물차단 / 평균 99.9% 박멸은 물론 PM2.5 초미세먼지 98.1%까지 차단 할 수 있는 첨단 나노 섬유유리 장점을 결합한 세계 최고의 '창문형 공기청정시스템'입니다.

1급발암물질 미세먼지	2급발암물질 미세먼지
집이나 직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90% 이상	집이나 직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90% 이상
환기를 안 하면 실내보다 2~5배 오염물질 발생	환기를 안 하면 실내보다 2~5배 오염물질 발생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없음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없음

절대적인 환기시스템 필요

SOLUTION

자연환기가 가능한 JB나노방진필터

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코 |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 | 폐포 손상 유발

【침투 가능한 먼지크기】

5-10μm

2-5μm

1-2μm

0.1-1μm

● 머리카락(50-70μm) ● 미세먼지(10μm) ● 초미세먼지(2.5μm이하)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주)한진시스템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TEL.711-5169

KCTV 우정골프연습장

해역사 콘도레전

(주)한진시스템